

## ‘신약개발’의 마라톤, 우리는 함께 달린다

### 뉴로제넥스 & 서울대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스피드보다는 페이스 조절에, 기록보다는 완주 자체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마라톤. 도착점이 보이지 않는 42.195km는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희열을 안겨주기에 드라마가 된다. 벤처에도 ‘마라톤’이 있다. 바로 평균 12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신약개발. 그리고 그 척박한 길을 당당한 보폭으로 뛰고 있는 뉴로제넥스와 물심양면으로 돕는 서울대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지금, 이들의 성공 레이스가 막이 오른다.

글: 차승진 사진: 김윤희

기 온은 겨울이나, 아직 가을 옷을 입은 관악산. 그 품에 안겨있는 서울대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는 11월의 매서운 바람에도 그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연구에 밤낮이 따로 없음은 이미 알고 있지만, 멀고 먼 여정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터. 이곳에서 만난 뉴로제넥스는 신약개발이라는 장기적인 승부수를 놓지 않으면서도 그 길을 뒷받침 할 캐시카우로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뛰어든, 도전이 삶이자 꿈인 영락없는 ‘벤처’다.

#### 눈은 높게 발은 땅에, 뉴로제넥스

“인체를 나라에 비유한다면 세포는 하나의 소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각 도시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기본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신약을 개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요.”

초고속 세포분석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뉴로제넥스. 뉴로제넥스는 지난 2000년 5월 31일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지정된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정진 교수의 실험실을 모태로 탄생했다. 그리고 세포언어분석기술을 바탕으로 관절염, 비만, 전립선암 등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신약 후보 물질을 조기에 사업화하고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 ‘보뜨’를 시판, 이미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목표가 너무 높으면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현실과 괴리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눈이 높더라도 발이 단단히 땅에 있으면 그 꿈을

위한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저희는 계획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주변의 이목을 살피느라 조금씩 움직일 필요는 없지요.”

자신만의 경영소신을 밝히는 신동승 대표. 올해 코스닥 상장의 기회가 있었지만 내부 역량을 충분히 갖추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일단 내년이 뉴로제넥스에겐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신약개발로 본격적인 수익을 올리는 시작점이자, 해외진출의 신호탄을 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싶지요. 하지만 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연구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확대 재생산할 무한한 가치 역시 믿거든요.”

꿈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하기에 미래를 믿는다는 신동승 대표. 29명의 인력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구원 특유의 우직함은 이미 단단한 디딤돌을 놓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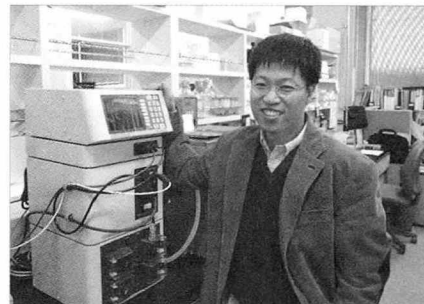
### ‘작은 센터’의 따뜻한 힘, 서울대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뉴로제넥스는 서울대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의 만형이자, 터줏대감이다. 바로 2002년 3월 1일, 서울대 출신이란 인연으로 센터에 첫 번째로 입주한 벤처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뉴로제넥스와 창업보육센터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마침 내일모레 ‘보뜨’ 마케팅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어요. 화장품 시장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특별한

마케팅이 꼭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 벤처기업이 탄탄한 마케팅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센터가 나서야지요.”

스스로 ‘작은 센터’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임선영 매니저. 그녀는 여



연구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뉴로제넥스 신동승 대표▲

성이 가지는 섬세함과 따뜻함을 살려 누나처럼 입주기업들을 보살피고 싶다고 말한다. 계획만 거창한 게 아닌, 정말 그 회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동승 대표 역시 연구공간의 확충은 물론, 연구기자재 사용 그리고 마케팅과 특허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신약개발에 동물실험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실험하기엔 어려움이 많아요. 마침 센터에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추천해주 큰 도움이 되었죠.” 본질적으로 외로운 마라토너를 닮은 듯, 신약개발이라는 지난한 길을 달리고 있는 뉴로제넥스. 그러나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술과 가장 힘든 순간에 생수 한 병을 내밀어 주는 누나 같은 센터가 있기에 그들의 레이스가 마냥 힘겨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 뉴로제넥스

- 대표 : 신동승
- 설립일 : 2000년 5월 31일
- 인원수 : 29명
- 주요품목 : 신약연구개발
- 홈페이지 : www.neurogenex.com
- 전화 : 02-875-8998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310~312호

## 서울대학교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 센터장 : 홍주봉
- 개소일 : 1999년 4월 1일
- 중점보육분야 : 생명공학
- 입주기업 : 11개 기업
- 홈페이지 : http://bt.snu.ac.kr
- 전화 : 02-880-8290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 서울대학교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지원 프로그램

- 컨설팅 지원
  - 교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조직으로 기술·경영·자금지원 등 컨설팅, 센터 및 각 입주기업의 업무상 필요 법률 상시 컨설팅
-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파티 형식으로 졸업 & 입주기업 임직원 만남의 장 개최(년 1~2회), 주기적 간담회로 임원진 간의 교류 형성 유도, 센터장과 각 기업 대표와의 직접 간담회 개최
- 교육 지원
  -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기술세미나(CRO), 특허경영컨설팅, 회계(연구비, 전자상거래 관리) 등의 세미나 실시